

‘극락조’ 한 그루를 샀다. 뒤이어 ‘알로카시아’ 한 그루도 샀다. 물을 너무 자주 주었기 때문일까. 극락조와 달리 알로카시아는 성장이 매우 빨랐다. 하지만 내구력이 약했던 알로카시아는 높게 솟아난 줄기를 지탱하지 못하고 이내 고개를 숙였다. 할 수 없이 가지를 잘라 주었더니 아예 성장을 멈추어 버렸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7개의 토후국으로 된 연합국이다. 이 나라의 쌍두마차는 만행인 아부다비와 막대한 부를 축적한 두바이이다. 풍부한 석유자원을 기반으로 한 아부다비는 현재 7000억 달러의 국부 펀드를 쌓아두고 있다. 이와 달리 ‘사막 위의 기적’, ‘사막 위의 뉴욕’으로 불리며 신화를 만들었던 두바이는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른바 ‘두바이 쇼크’는 국영기업인 ‘두바이 월드’의 채무불이행 선언에 따른 금융 쇼크이다. 이 쇼크는 국가채무가 많은 그리스, 터키, 아일랜드, 헝가리 등 신흥국들의 부도위험으로 퍼져가고 있다.

그동안 두바이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기회의 땅’이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두바이 드림’을 꿈꾸며 모여들었다. 8년 만에 인구가 91%가 급증하여 164만 6000명에 이르렀다. 이 변화의 견인차는 지도자들의 남다른 위기의식이였다. 그들은 오래 전부터 “석유가 바닥난 뒤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지”를 끊임없이 구상했다. 해서 두



불자 세상보기

고영섭
동국대 교수

‘두바이’ 미래성인가? 공든 탑인가?

바이는 ‘물류 허브’로 탐방꾼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켜 왔다. 자국의 발전에 국적이나 관습을 따지지 않는 ‘유연성’은 여러 나라들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공공기관조차도 이슬람 휴일인 목요일과 금요일에 업무를 하게 했다. 아예 24시간 근무를 하는 곳도 생겨났다. 하여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깨어버린 ‘창의성’은 높게 평가되고 있다.

두바이의 지도자 알막툼 총리(60)는 미국 CBS 인터뷰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왜 당신은 모든 것을 세계 최대, 최고로만 만들려고 합니까?”(기자) “왜 안 됩니까? 뉴욕에서 그런 게 가능하다면, 여기서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두바이 통치자 무하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그건 그렇다 쳐도 왜 이렇게 급하게 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평생 걸려서 할 일을 왜 하필 몇 년 안에 하려고 합니까?”(기자) “저는 우리 국민이 바로 오늘 잘 살게 되길 바랍니다. 20년 뒤가 아니라 바로 오

늘 말합니다.”(알막툼) 두바이의 초고속 성장과 최근의 국가부도 위기는 알막툼의 ‘외형에 대한 집착과 조급함’에서 잘 나타나 있다.

‘두바이 쇼크’의 원인은 원유 생산이 미미한 두바이가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에 몰두하며 과도하게 부동산 사업의 확장에 있다. 여기에 세계 경제의 불황도 한 몫을 했다. ‘건축 사상 8년째 불가사’로 불리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세계 최대의 인공섬 ‘팜주메이라’(면적 560만 m²)에는 현재 30여 개의 호텔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는 호텔은 아틀란티스 호텔 하나뿐이다.

틀스토이의 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에서처럼 과도한 욕망은 불행을 초래한다. ‘두바이 쇼크’를 보며 우리를 모두에게 되묻고 싶다. 이제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행복이 필요한가”를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을 알게 되면 고마움을 알게 된다”고 하셨다. 그리고 고마움을 알게 되면 내면이 충만해진다. 이제 우리는 내면의 충만을 위해 힘을 기울일 때다. 키가 큰 ‘극락조’를 뒤쫓다 긴 줄기가 잘린 채 성장을 멈추고 있는 ‘알로카시아’와 두바이의 소생을 기원해 본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움직이는 선원의 의미

남원 실상사에서 아주 특별한 동안제가 시작됐다. 12월 1일 동안제 결재일에 실상사에는 한국불교 최초의 움직이는 선원 입제식이 열렸다.

지리산성지화불교연대가 주관하는 이 움직이는 선원은 이미 지난 여름 실상사에서 야단법석을 떨치며 가시화 됐었다. 7명의 스님들이 입제를 했고 입제대중은 정적이 감도는 선방이 아닌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지리산 돌레길 일대를 걸으며 정진을 하게 된다.

이 움직이는 선원이 주목받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우선 그 형식의 문제다. 기존의 선방이 참선을 위주로 하는 정적인 수행을 유지해 왔지만 움직이는 선원은 이를 그대로 동적인 선을 추구한다. 반드시 좌선을 통한 수행만 선이 아니라는 것을 선원대중들이 입증해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 수행방법에 대한 담론이 새롭게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불교의 자연 생명 사랑 정신이 안거대중들의 행선을 통해 구체화된다는 점도 주목된다. 길을 걸으며 스스로의 몸을 살피고 자연을 살피면서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는 수행을 통해 일체중생이 한 몸임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가 크다. 움직이는 선원은 오늘날의 불교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고 변화를 위한 자기혁신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무언으로 응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불교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는 움직이는 선원이 추구하는 가치 실현을 얼마나 하게 될지 자못 기대가 크다.

여성불자 108인 운영에 활력을

불교여성개발원이 여성불자 108인을 선정 발표했다. 네 번째다. 2003년 이후 격년으로 선정되는 여성불자 108인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공간에서 활동하는 전문여성불자들이다. 이번에 선정된 여성불자 108인도 그 면면이 매우 화려하다. 대부분이 각계각층에서 불자로서의 공적을 가지고 자신의 전문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분들이다.

훌륭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성불자들을 통해 모범적인 불자의 삶을 계도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물론 선정된 여성불자들이 스스로의 삶을 더욱 견고하고 왕성하게 일궈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108인에 선정된 여성불자들은 여성 지도자간의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행과 수행의 장을 마련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다고 한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사회구성의 역할분담에 성차별이 있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불교계의 ‘우면파워’ 역시 불교개혁의 현장에서 남녀의 차별이 없음을 드러내 왔다. 여성불자 108인의 선정도 이러한 차별의 문제를 초월한 곳에서 모범적인 불자상을 창출해내는 동기가 되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어렵게 선발한 108인들이 우바이의 전형을 보여줄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미 4회를 이어왔다면 432명의 여성불자들이 선정된 것이므로 그들의 파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따라야 할 것이다. 선정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 선정된 그들이 여성불자들에게 무한한 실행의 에너지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12월의 테마-유종의 미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었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비단 프로스트의 이러한 탄식이 아니라도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크든 작든 끊임없는 선택으로 이루어진 인생에서 뒤돌아보지 않고 나아가기란 참 어렵다. 마치 천길만길 넘어져서 위와 작은 다리를 건너듯 신중하게 생각하고서 결정해도 언제나 미진한 부분이 남기 마련이다. 시간을 되돌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후회는 언제나 우리의 발목을 잡아둔다.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는 그것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 때로는 지금의 나를 돌아보게도 한다.

그뿐이 아니다. 언제나 내 손아귀에 들어있는 이것보다는 상대방이 들고 있

끝이 아름답기 위하여

는 저것이 훨씬 크고 값져 보인다. 저것을 빛나게 하기 위한 그 사람의 노력이나 땀, 눈물 같은 것을 내가 알 필요는 없다. 오직 내가 아닌 타인이 갖고 있기에 내 것보다는 좋아 보일 뿐이다.

과정을 살피지 않고 결과만 좇는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타인을, 내 것과 다른 이의 것을 비교하며 불만과 불평을 쌓아간다.

결국 후회와 비교는 나 자신을 작게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어버린다.

더 나은 자신과 더욱 풍족한 삶을 바라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누구나 바라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이루어 내지만 누군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차이는 어디에서 생긴 것일까.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와 타인에 대한 비교는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들추어낸다. 물이 말라버린 우물 바닥을 파내는 것처럼 후회와 비교는 계속해서 삶을 인색하게 만들어줄 뿐이다. 후회와 비교로 인한 불평, 불만, 증오 같은 부정적인 나의 감정들은 더욱더 나와 내 주변을 얽어매 뿐이다. 나의 미래나 과거를 긍정할 필요 없이 현재의 나를 살펴보라던 부처님의 가

르침을 생각하면 이렇게 부정적인 내 감정과 사고들은 결국 앞으로의 내 모습과 생활이 어떠할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결국 내가 누구든지, 어디에서 서 있는지 인생에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것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아닐 것이다.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있는 방법은 내가 가지 않은 길, 내가 가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후회와 비교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달력만이 남은 2009년도의 마무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난 11장의 달력들을 보면서 갖는 후회보다는 남은 1장의 달력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오늘도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다가올 2010년에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드려야겠다.



지용
서울아산병원 불교법당 지도법사

현불만평 박구원

조선훈화국

화폐 개혁과 함께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www.hyunbul.com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사 : (054)634-3429
충청지사 : (043)732-5560 부산지사 : (051)632-0064
전북지사 : (063)910-8977 강원지사 : (033)744-3618

현대불교 시시안내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각종 마이크·스피커·앰프 설치·찬불가 반주기 설치 (550곡 수록)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무선마이크

사찰 하이파이 앰프

4분할

TV,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기능까지.. (야간에도 녹화 가능함)

사찰 CCTV 설치

투윈미디어 방송·음향·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중로구 장사동 156번지 아세아전자상가 기열 119호 대표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화제의 신간

새로운 滴天髓풀이

[제1권]

21세기 新개념의 역학!

적천수천미와 적천수징의를 철저히 비교 분석하여 그 동안 밝혀내지 못 했던 오류를 바로잡았으며, 한글세대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메끄럽게 번역했다. 그리고 풍부한 해설을 곁들였을 뿐 아니라 천미와 정외에 예시된 수많은 명조마다 사주의 구조와 운의 좋고 나쁨을 일일이 명쾌하게 해석해 놓음으로써, 누구든지 독학(獨學)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천미나 정외에 나오지 않는 자평 명리학의 이론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폭넓고 상세하게 다루었다.

2권, 3권도 곧 출간에 예정입니다.

著者 羅明禎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756쪽 / 정가 40,000원

속원 보인다 4천 원 / 4x6배판/양장본/70,000원
이계 풍수다 신국판/성재권 지음/15,000원
육묘학 핵심비결 신국판/송일 스님 지음/양장본/3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자/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x6배판/이선원,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x6배판/양장본 1권 880쪽 2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문론 신국판/양장본/신명 지음/26,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韓國人의 新사주팔자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하는가?

독학으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21C 역학 지침서!

해박한 지식, 명쾌한 논리, 번역이신 지성, 만물을 꿰뚫는 통시력, 특히 공부하고 싶어하는 경험 등은 결코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도저히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신선함이 있다.

정신 김성진 지음·신국판·양장본 / 값 35,0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사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까지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롭게 하늘의 기쁨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감흥을 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경술하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